

# 내장산생태탐방원 자유학기제(진로캠프) 운영 기본 계획

## 1. 목적 및 배경

-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세계의 경험과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하는 기회 제공을 통해 환경마인드 고취 및 보전의식 함양
-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숲학교( ), 자유학기제( ○ ), 주니어레인저( )
- 프로그램명 : 뽀뽀(Fun Fun)한 국립공원 진로여행
- 대 상 : 중학생 25명
- 운영기간 : 여름 방학 기간 중 운영
- 운영형태 : 1박 2일 / 2회 운영
- 장 소 : 내장산생태탐방원, 내장산 일원, 생물종보전원
- 주요내용 : 국립공원직업소개 (자원보전전문가, 안전관리전문가 등)
- 소요예산 : 200만원
- 참 가 비 : 67,600원/인(숙식비 포함)  
※ 버스임차료, 간식비, 여행자보험 등 탐방원 제공

##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정읍 교육지원청 협의 후 인근 교육기관 참여자 모집, SNS 홍보
- 참가자 접수 방법 : 단체 유선 접수, 이메일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보도자료 제공(9월, 1회)

##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효과성 조사 : 프로그램 운영 전·후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 첨부 1. 일정표 1부.

2.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1부.
3. 현황사진 1부. 끝.

## 첨부1 : 일정표

| 시 간         | 소요<br>시간    | 주 요 내 용                              | 장 소  |              |
|-------------|-------------|--------------------------------------|--|--------------|
| 1<br>일<br>차 | 11:30~12:00 | 30'                                  | ○접수, 숙소배정 및 짐 풀기   | 강의실          |
|             | 12:00~12:30 | 30'                                  | ○오리엔테이션<br>- 운영자 및 참가자 소개, 일정안내<br>- 사전 설문지 작성<br>- 안전교육                         |              |
|             | 12:30~13:30 | 60'                                  | ○점심식사 및 휴식   | 식당           |
|             | 13:30~13:40 | 10'                                  | ○이동 (탐방원→단풍생태공원)   |              |
|             | 13:40~15:40 | 120'                                 | ○탐방객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대 「안전관리전문가」<br>- 3분의 기적(AED 사용법, 응급처치법 교육)<br>- 수료증 발급(대한심폐소생협회) | 강당           |
|             | 15:40~15:50 | 10'                                  | ○휴식  |              |
|             | 15:50~17:50 | 120'                                 | ○국립공원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요? 「동물학자」<br>- 동물의 흔적 찾기 (에코엔티어링)<br>- 미션! 내장호 여름 새를 찾아라!       | 내장호          |
|             | 17:50~18:00 | 10'                                  | ○이동 (단풍생태공원→탐방원)   |              |
|             | 18:00~19:00 | 60'                                  | ○저녁식사 및 휴식   | 강당           |
|             | 19:00~20:30 | 90'                                  |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환경관리전문가」<br>- 모듈별 자연놀이<br>- 환경 유튜브 제작하기                           |              |
| 2<br>일<br>차 | 07:30~08:20 | 50'                                  | ○기상 및 아침식사, 짐정리  | 식당, 생활관      |
|             | 08:20~08:40 | 20'                                  | ○아침산책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br>- 올바른 걷기 법 알아보기<br>- 탐방원 주변 올바른 걷기법으로 산책                  | 탐방원 일원       |
|             | 08:40~10:00 | 80'                                  | ○이동 (탐방원→생물종보전원)   |              |
|             | 10:00~12:00 | 120'                                 |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라! 「국립공원 수의사」<br>- 국립공원 수의사가 하는 일<br>- 곰 복원에 관한 이야기                 | 구례<br>생물종보전원 |
|             | 12:00~13:00 | 60'                                  | ○점심 식사   |              |
|             | 13:00~14:20 | 80'                                  | ○이동 (생물종보전원→탐방원)   |              |
| 14:20~      |             | ○마무리 및 해산<br>- 사후 설문지 작성<br>- 수료증 수여 |  |              |

## 첨부2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 뽀뽀(Fun Fun)한 국립공원 진로여행 (1박2일)



|      |                             |
|------|-----------------------------|
| 운영장소 | 내장산생태탐방원 (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
| 참가대상 | 중·고등학생 25명                  |
| 운영시간 | 여름방학 기간 중 1박 2일 운영          |
| 참가비용 | 유료 (1인 00000원)              |
| 신청방법 | 전화문의 (063-538-1700)         |

#### 교육내용

##### 탐방객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안전관리전문가」

AED 사용법과 응급처치법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흥미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협회에서 수료증 발급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모든 것을 연구하는 「동물학자」

동물흔적을 통한 동물 알아보기와 내장호에 서식하는 새 관찰하기를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국립공원 수의사」

실제로 생물종보전원에 방문하여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연구하고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사업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

# 뽀뽀(Fun Fun)한 국립공원

## 진로여행

(국립공원진로캠프)

활동장소

내장산생태탐방원,  
단풍생태공원, 생물중보전원

소요시간

1박 2일

참가대상

중학생

참가인원

25명

###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환경 관련 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자연보전에 대한 국립공원의 역할을 알고 국립공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시킨다.

### 준비물

- 동물의 흔적 교보재, 컨트롤마커, 필드스코프, 새도감, 응급처치 세트, 환경놀이 체험 교구재 등

### 유의사항

- 작은 곤충이라도 해치거나 아프게 하지 않도록 유의
- 이동 시 안전에 유의 한다.

| 단계             | 교육내용   | 비고 |
|----------------|--|----|
| 도입<br>(생각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오리엔테이션</li><li>- 사전 설문지 작성</li><li>-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li></ul></li></ul>   |    |
| 전개<br>(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탐방객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안전관리전문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ED 사용법</li><li>- 응급처치법 교육</li></ul></li><li>• 국립공원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요? '동물학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물의 흔적 찾기(에코엔티어링)</li><li>- 미션! 내장호 여름 새를 찾아라!</li></ul></li><li>•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환경관리 전문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연에서 배운다 환경놀이 체험</li><li>- 환경 유튜브 제작하기 (모둠별)</li></ul></li><li>•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올바른 걷기 법으로 탐방원 주변 산책</li></ul></li><li>•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라! '국립공원 수의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립공원 수의사가 하는 일</li><li>- 곰 복원에 관한 이야기</li></ul></li></ul> |    |
| 마무리<br>(생각나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느낀 점 공유 하기</li><li>• 참가자 설문(사후 설문지 작성)</li></ul>   |    |

## 시나리오

### 탐방객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국립공원안전관리전문가'

우리나라는 등산과 같은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탐방객들은 등산이란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 속 산행인 만큼 주변엔 수많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가는 이러한 위험한 부분을 조사합니다. 국립공원의 여러 위험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우는 바로 계곡범람으로 이어지며,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태풍이나 폭풍은 바로 해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해상국립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봄·가을철에 접어들어서는 밤낮의 기온차이가 심해지면서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탐방은 바로 저체온 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폭설을 자칫하면 눈사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밖에 안전관리전문가는 폭우 또는 얼음이 녹거나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일어나는 낙석과 산사태지역을 조사하고, 번개로 인한 감전에 대비하기도 하며, 위험한 지형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문가는 자신의 체격과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추락 심지어 심장돌연사의 위험까지 조사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전문가는 안전한 탐방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안전산행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국립공원 현장에서는 사전에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우량경보시설과, 기상관측시설, 재해문자전광판을 운영하며 탐방객들에게 알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지 않나요?

구조 활동은 소방서에서 하는거 아닌가? 굳이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가 필요할까? 와 같은 궁금한 점들 말입니다. 물론 119 구조대원들도 국립공원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9에서는 화재,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 등 처리하는 업무가 다양하죠? 국립공원에서의 산악지형인 특수한 환경에까지 119 구조대들의 손길이 미치기엔 다소 힘든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립공원의 지리와 지형을 잘 알고 특수한 산악구조장비를 갖춘 국립공원만의 안전관리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악구조훈련에 있어서는 119 구조대원들이 국립공원에서 구조훈련기술들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알아야 할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위험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술, 경험, 정보, 장비, 식량, 정신력, 체력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한가지가 부족하면 옆에 있는 위험요소들이 바로 우리 앞으로 나타나고 바

로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안전탐방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안전관리전문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동제세동기 AED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을 배울텐데 모두 학교에서 한번 씩 배웠었나요? 이런 응급처치법들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위급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꼭 한번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시행하게 되면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화시키기 때문에 뇌의 손상을 줄여주고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무려 3배로 높아집니다. 꼭 알아두어야겠죠?

오늘 교육에 앞서 전문 강사님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AED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 AED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 마무리 후 수료증 발급)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리 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모두 위급상황에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

### 국립공원에는 어떤 동물이 살까요? '동물학자'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야생동물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먹이피라미드의 한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한 층이 사라진다면 피라미드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야생동물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의 우수한 능력을 모방하면서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예를 들어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박쥐가 어둠 속에서 먹이를 포착하는 행동 연구해서 레이더 개발을 하는 등 야생동물들은 우리의 삶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립공원에서 동물학자들이 야생동물을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먼저 내장산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네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그 동물들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시나요?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동물들이 살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곳에 어떠한 동물이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알려면 동물들이 남긴 흔적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동물의 흔적을 알기 전에 사람은 어떤 식으로 흔적을 남길까요? 사람은 흔적을 남길 때 사진으로 많이 남깁니다. 또한 유명명소 같은 데를 가 보면 나쁜짓이긴 하지만 00년 00월 00일 000왔다감, 놀다감, 누구는 내꺼야~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글씨로 많이들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글씨를 쓰지 못하는 동물들은 흔적을 어떻게 남길까요? (질문유도)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 동물의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야생동물들의 흔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동물이 살고 있고 또한 그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흔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흔적은 발자국입니다. 우리들도 모래 위를 걷거나 진흙 위를 걷게 되면 우리들의 발자국이 찍히죠. 그렇게 동물 친구들도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럼 산에서 가장 발자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리면 그 위에는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습니다. 자 그럼 발자국 말고 다른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도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잖아요. 동물들도 먹이를 먹고 배설을 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을 통해서 야생동물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알 수 있고 건강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행동범위를 갖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물들의 보금자리나 여러 다른 흔적을 통해서도 동물들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발자국



▲ 동물의 배설물

자 그럼 여기 여러 동물들의 발이 있는데 누구의 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다람쥐, 너구리, 고라니, 멧토끼, 족제비, 멧돼지의 앞발을 보여준다)

다람쥐는 앞발을 이용해서 도토리를 부여잡고 먹기 때문에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또한 달리기를 잘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앞꿈치로만 달리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



왜가리는 회색 빛을 띄며 머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회색에 머리 줄무늬 보이시나요?

관찰되기 쉬운 텃새 중 붉은머리오목눈이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관찰되는 흔한 텃새로 이들은 갈대나 덩불지대에 무리를 지어 서식합니다. “뱀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량이 찢어진다”라는 속담 아시죠? 속담에 나오는 뱀새가 바로 붉은머리오목눈이입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초지에서부터 갈대지대, 덩불, 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개방된 컵 모양의 등지를 만들어 번식을 합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번식시기에는 빠꾸기가 몰래 와 탁란을 시도합니다. TV에서 빠꾸기의 탁란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빠꾸기는 자기 알을 다른 새의 등지에 몰래 낳아 그 새가 자기 자식인줄 알고 키우게 하는 새입니다. 즉 ‘탁란’이란 남의 등지에 알을 낳는 행위를 말합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자기 새끼인줄로 알고 키우는데 우리가 보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빠꾸기의 교묘함이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빠꾸기는 탁란을 하기 위해 등지를 정하고 그 주위에 생활을 합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알은 보통은 푸른색인데 알을 낳고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잠깐 등지를 비운사이 몰래 조금 더 큰 똑같은 색깔의 알을 낳아 놓는 것입니다. 빠꾸기의 알은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얼른알에서 나와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채 부화되지 못한 알을 등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살기위한 본능이 대단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가 빠꾸기 새끼만 키워주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빠꾸기와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머리 싸움은 대단합니다. 빠꾸기는 알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알을 먹어 치운 후 10초 만에 알을 낳아 놓지만,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이를 눈치채고, 70%정도는 빠꾸기의 알을 부리로 쪼아 등지 밖으로 밀어 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알만 탁란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뱀새는 탁란을 피해 진화한 흰색 알을 낳는 뱀새는 100% 빠꾸기 알을 제거 했다고 합니다. 이에 빠꾸기도 알의 색깔이 점점 옅은 색의 알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붉은머리오목눈이와 빠꾸기 모두 대단하지 않은가요?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자기새끼라고 믿고 키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미새는 큰 알과 큰 새끼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숲의 의사라고 불리우는 딱따구리중 큰오색딱따구리와 쇠딱따구리의 모습도 쉽게 관찰 할수 있으니 찾아보시기바랍니다.

그 밖에 원앙, 동고비, 딱새, 곤줄박이, 흰뺨검둥오리 등 많은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공간이 생물체들이 살아 숨 쉬는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들의 집도 지켜

줘야겠죠?

이렇게 국립공원 동물학자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동물들의 행동반경들은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수서 곤충을 모니터링 하면서 계곡의 오염도는 어떤지 계곡이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환경관리전문가'

- 자연에서 배운다 환경놀이 체험

오늘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나요? 사회성 증진을 위해 환경놀이를 몇 개 준비 해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손을 잡고 동그란 원을 만들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손을 놓거나 꼬지 않고 바깥쪽을 바라보기

두 번째 미션입니다. 다시 손을 놓거나 꼬지 않고 안쪽을 바라보기

어떤가요? 쉬웠나요? 자연에서는 이렇듯 모든 생태고리가 유기적으로 끊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명이라도 끊어지면 원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생태계도 하나만 끊어져도 많은 혼란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항상 염두해두고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 유튜브 제작하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시나요? 아니면 노래나 랩을 잘 부르시나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춤을 잘 추시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 하고 잘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하는 것을 뽑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장기 이든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데 환경관련 랩을 해도 되고 아니면 환경관련 캠페인 영상을 만드셔도 됩니다. 연극형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모듈에겐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으니 20분정도 준비 후 발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 아침산책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없어도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하고 있지만 걷기 운동에도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잘못된 걸음걸이는 오히려 역효과로 건강을 망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니, 올바른 자세로 걸어 우리의 다리도, 몸도 튼튼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먼저 좋지 않은 걷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패션모델들이 걷는 방법인 일자 걸음은 좋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과장된 자세로 무게중심이 무릎 안쪽에 실리면서 내측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 끝이 안쪽으로 향해 걷는 형태인데 이것도 무릎 안쪽 연골이 힘을 직접 받아 압력이 쏠리면서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깥 쪽으로 걷는 것을 팔자 걸음이라고 하는데 양반다리, 책상 다리를 많이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걸음 형태라고 합니다. 팔자 걸음으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고 골반의 비대칭 현상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좋은 걷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목부터 허리까지 최대한 곧게 펴진 상태로 발끝은 11자 모양으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 뒤꿈치부터 앞쪽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닿도록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전방 15m에 두고 걷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신발이 유난히 빨리 닳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걸음걸이로 다니는 것이므로 오늘부터 잘 확인하면서 올바른 걷는 방법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바른 걷기법으로 저와 같이 자연으로 떠나 볼까요?

####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라! '국립공원 수의사'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여우와 산양같은 멸종위기동물을 복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위험한 동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곰이나 여우를 왜 복원을 하려고 할까요?

특정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 그 종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영향은 생물종 다양성을 저해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복원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과 같은 동물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과도한 남획과 밀렵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므로 복원이 시급한 종인것입니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포유류 종은 최상위 소비자나 포식자로서, 또는 산림생태계의 우산종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복원을 통해 이들 종이 되살아 난다면 그 종이 서식하는 넓은 생활권 내 다양한 동·식물종의 생존도 담보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구례에 있는 생물보전원에 방문을 하여서 거기서 일하시는 국립공원 수의사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복원 유전자 내용과 곰추적 장치 등을 보도록 할건데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립공원 직업에 대한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공존을 위해 노력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해볼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리해서 남겨두면 무슨 질문을 해야할지 잊지 않을테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례 생물보전원 수의사와의 만남)

## 마무리

여러분은 1박2일동안 국립공원의 많은 직업 중 대표적인 직업들을 체험해보았습니다. 국립공원에 입사하려면 관련분야의 공부를 하여 관련학과에 진학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갖추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립공원 입사하여 같이 근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또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강한 체력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세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발자국만 남기고 가세요 (Leave nothing but footprints),

사진만 가져가세요 (Take nothing but photos),

시간만 보내고 가세요 (Kill nothing but time).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도, 가져오지도, 죽이지도 마세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숲이 마찬가지입니다.

숲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꽃 등을 꺾어서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숲을 자연 그대로 두어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자녀, 손자, 손녀 즉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곳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더욱 더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직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로캠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3 : 현황사진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환경교육 전문가



동물학자 체험(에코엔티어링)